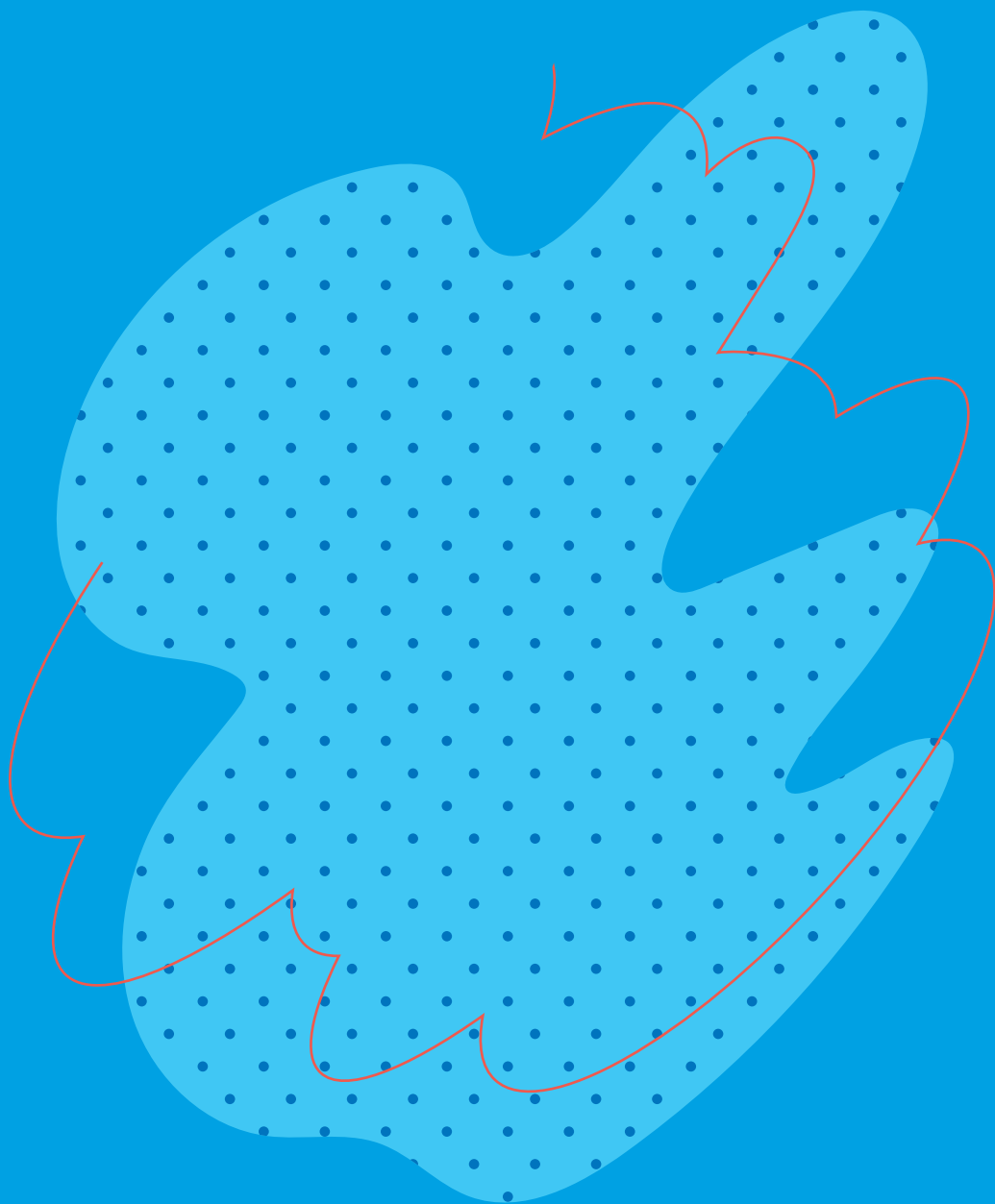


서울시합창단 제137회 특별연주회



Summer
Family Concert

백윤학 X 서울시합창단

여름 가족 음악회

여름밤, 가족과 함께 떠나는 클래식 음악 여행



2025년 여름, 서울시합창단이 선사하는 아주 특별한 무대!

백윤학 X 서울시합창단



클래식의 정수와 오페라의 감동,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선율까지.

서울시합창단 여름 가족 음악회에서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Program

1부

Stage 1. 장엄한 클래식으로 여는 오프닝 무대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소프라노 | 신채림 메조소프라노 | 박경안
테너 | 정보람 베이스 | 나한유
오르간 | 이수정

- Intermission(20'00") -

2부

Stage 2. 세계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명곡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서곡'

*오케스트라 단독 연주

베르디

오페라 <일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 '허밍 코러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소프라노 | 허진아
테너 | 김민수

Stage 3. 모두가 함께 즐기는 친숙한 클래식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오케스트라 단독 연주
오르간 | 이수정

슈베르트

<마왕> 합창 편곡 | 한태호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요한 스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작사·합창 편곡 | 한태호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gram Note

Missa brevis in C major, K.317 "Coronation Mass"

W. A. Mozart

대관식 미사

작곡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 A. Mozart, 1756-1791)

가사 | 라틴어 미사통상문 (Latin Mass Ordinary)

1779년 잘츠부르크 대성당 봉헌 미사를 위해 작곡된 작품으로,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성격을 지닌다. '대관식'이라는 별칭은 빈 궁정의 주요 의식에서 자주 연주되면서 붙은 것으로, 장중함과 축제적 화려함이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짧은 형식 안에서도 모차르트 특유의 맑고 빛나는 선율이 두드러진다. Kyrie의 힘찬 기도, Gloria의 찬란한 전개, Credo의 드라마틱한 고백은 각 부분의 성격을 선명히 드러낸다. 특히 'Et incarnatus est' 대목에서는 성육신의 신비를 담아낸 서정적 선율이 깊은 울림을 전한다.

후반부의 Sanctus와 Benedictus는 장엄함 속에 따뜻함을 머금고 있으며, Agnus Dei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점차 환희로 고조되며 마무리된다. 경건함과 축제의 기쁨이 함께 담긴 이 곡은 오늘날에도 가장 널리 연주되는 모차르트 미사곡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Carmen - Prélude

Georges Bizet

오페라 <카르멘> 중 '서곡'

작곡 | 조르주 비제 (Georges Bizet, 1838-1875)

*오케스트라 단독 연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1875)을 여는 '서곡'은 작품의 극적 성격과 긴장감을 압축해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현악 곡이다. 당당하고 화려한 도입부는 투우사의 행진을 연상시키는 힘찬 리듬과 밝은 색채로 펼쳐지며, 이어지는 대조적인 선율은 주인공들의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는 '운명의 주제'로서 깊은 긴장을 드러낸다. 이러한 전개는 작품 전체에 흐르는 열정과 파멸의 기운을 미리 드러낸다.

짧지만 극적인 효과와 선율미가 두드러지는 이 곡은 오페라의 서사를 응축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비제 특유의 선명한 관현악법과 프랑스 오페라의 세련된 감각이 빛나는 작품이다. 오늘날에는 공연의 서두뿐 아니라 독립적인 콘서트 레퍼토리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Il trovatore - Coro di zingari "Vedi! le fosche notturne spoglie" Giuseppe Verdi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작곡 |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 1813-1901)

대본 | 살바토레 캄마라노 (Salvatore Cammarano, 1801-1852)

보완 | 레오네 에마누엘레 바르다레 (Leone Emanuele Bardare, 1820-?)

베르디의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1853) 제2막 제1장에 등장하는 '대장간의 합창'은 작품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 장면 중 하나로, 강렬한 리듬과 생생한 현장감을 담은 음악이다. 무대 위 집시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 대장간의 망치질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며, 규칙적인 리듬과 오케스트라의 금속적 울림이 마치 실제 대장간의 쇠소리를 연상케 한다.

가사는 밤의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옴을 노래하며, 집시들의 자유분방한 삶과 활력을 상징한다. 남성 합창과 여성 합창이 교대로 노래를 주고받으며, 술과 사랑, 노동의 기쁨을 노래하는 대목은 이 합창의 힘찬 생명력을 더욱 고조시킨다.

베르디 특유의 선명한 선율과 극적인 효과는 이 장면을 단순한 '삽입 합창'이 아니라, 일 트로바토레의 전체적 긴장과 대비를 강화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만든다. '대장간의 합창'은 오페라 무대뿐 아니라 독립곡으로도 자주 연주되며, 베르디 합창음악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Madama Butterfly - Coro a bocca chiusa

Giacomo Puccini

오페라 <나비부인> 중 '허밍 코러스'

작곡 | 자코모 푸치니 (Giacomo Puccini, 1858-1924)

대본 | 루이지 일리카 (Luigi Illica, 1857-1919)

주세페 자코사 (Giuseppe Giacosa, 1847-1906)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1904) 제2막 막간에 배치된 '허밍 코러스(Coro a bocca chiusa)'는 등장인물의 대사 없이 합창이 입을 다문 채 '음-' 소리만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인 장면이다. 단순한 허밍이지만 풍부한 화성과 섬세한 오케스트라 반주가 어우러져 극적 긴장과 정서를 고조시키며, 초초상과 핑커튼의 재회를 기다리는 나비부인의 간절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 곡은 가사가 없는 무가사 합창이지만, 오히려 언어를 초월한 보편적 울림으로 깊은 감동을 준다. 푸치니 특유의 서정성과 세밀한 색채감이 응축된 이 합창은 오페라의 핵심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며, 독립적인 연주곡으로도 자주 사랑받는 대표적인 명장면이다.

Nabucco - Coro degli ebrei "Va, pensiero, sull'ali dorate" Giuseppe Verdi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작곡 |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 1813-1901)

대본 | 테미스토클레 솔레라 (Temistocle Solera, 1815-1878)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1842) 3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바빌론 유수의 유대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장면으로, 절제된 선율과 코랄풍의 화성이 만들어내는 맑고도 장중한 울림이 특징이다. 테미스토클레 솔레라의 시("황금 날개로 날아가라, 생각이여")에 얹힌 유려한 칸타빌레가 단정한 호흡으로 이어지며, 약음으로 시작해 서서히 고조되는 다이내믹과 균형 잡힌 문구가 회상의 정서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종결구는 합창의 결속과 염원을 강화하며, 극의 흐름 속에서도 독립적인 완결성을 갖춘 합창곡으로 기능한다.

초연 당시부터 대중적 사랑을 받은 이 합창은 이탈리아 리소르지멘토의 상징적 노래로 자리매김하며 빈번히 앙코르로 연주되었고, 오늘날에도 독립 연주 레퍼토리로 널리 사랑받는다. 단순한 선율미에 기댄 정서적 호소력이 아니라, 언어와 음악의 긴밀한 결합으로 이룬 품위 있는 간결함이 작품의 힘이다. 공연맥락에 따라 오케스트라 반주와 혼성합창 편성이 다양하게 쓰이지만, 본질은 변함없이 "그리움"과 "존엄"의 음색을 통해 보편적 울림을 전한다.

La traviata – Brindisi “Libiamo ne’ lieti calici”

Giuseppe Verdi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작곡 |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 1813-1901)

대본 |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 (Francesco Maria Piave, 1810-1876)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1853) 1막에서 비올레타의 살롱 파티에 올려 퍼지는 ‘축배의 노래’는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주고받는 선창-응창 구조 위에 합창이 호응하는 장면으로, 경쾌한 춤곡풍의 리듬과 밝은 선율이 즉각적인 환희의 분위기를 만든다. 반복되는 후렴 “Libiamo...”이 자연스레 관현악과 성부를 묶어 주며, 간결한 구문과 명료한 프레이징은 가사의 음절과 리듬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도 생동감을 얻는 베르디의 경제적 필치가 돋보인다.

이 축배는 단순한 흥취의 노래를 넘어, “즐거움은 덧없다”는 가사의 화두로 작품의 핵심 주제 ‘쾌락과 사랑,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비극’을 앞질러 제시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합창과 독창이 겹쳐지며 에너지가 응축되고, 짧은 스트레타 느낌의 마무리가 무대 전환의 탄력을 더한다. 독립 연주나 앙코르로도 자주 연주되는 이유는, 선율의 매력과 극적 기능이 간결한 형식 안에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Cavalleria rusticana - Intermezzo

Pietro Mascagni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작곡 | 피에트로 마스카니 (Pietro Mascagni, 1863-1945)

*오케스트라 단독 연주

마스카니의 일막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1890)를 잇는 '간주곡'은 베리스모 양식의 거친 정념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요의 장면이다. 무대 위 인물들의 질투와 분노가 고조된 뒤, 단순하고도 맑은 선율이 현악기에 의해 노래되며 하프의 잔잔한 아르페지오가 배경을 수놓는다. 과장되지 않은 화성 진행과 투명한 음향, 절제된 다이내믹의 점층은 부활절 예전의 경건함을 떠올리게 하며, 곧 닥칠 비극을 암시하는 정서적 '숨 고르기'를 제공한다.

이 간주곡은 드라마를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서 작품의 도덕적·정서적 핵을 응축해 들려준다. 앞선 장면의 격렬함과 뒤이어 결말 사이에 놓여,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 서사의 긴장을 정화하고, 청중의 감정을 한 지점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간결한 선율미와 명료한 구조 덕분에 오페라 밖에서도 독립 연주곡으로 널리 사랑받으며, 성악 없이도 극의 세계를 환기시키는 상징적 음악으로 자리매김했다.

Program Note

Erlkönig, D.328

Franz Schubert

마왕

작곡 | 프란츠 슈베르트 (Franz Schubert, 1797-1828)

시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합창편곡 | 한태호 (Taeho Han, 1989-)

오케스트레이션 | 헥토르 베를리오즈 (Hector Berlioz, 1803-1869)

괴테의 동명 시(1782)를 바탕으로 한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 (1815)은 밤을 가르는 질주와 공포의 서사를 응축한 걸작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주의 셋잇단음표는 말발굽 소리와 바람을 형상화하고, 전조와 화성 변화는 해설자-아버지-아이-마왕 네 인물을 선명히 대비시킨다. 특히 마왕의 유혹에서 밝아지는 장조, 아이의 절규를 둘러싼 불협과 강세, 마지막 “그의 품 안에서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로 닫히는 냉혹한 종지까지 단 몇 분 안에 완결된 드라마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베를리오즈의 오케스트레이션에 합창 편곡을 더한 버전으로 연주된다. 해설자는 균형 잡힌 합창 사운드로, 아버지는 저성부로, 아이는 긴장된 고성부로, 마왕은 음영 짙은 테너로 배치해 말의 의미와 리듬을 극대화한다. 반주의 맥동과 성부 대비는 긴박감을 유지하며 텍스트를 선명하게 하고, 절제된 크레센도와 순간적 침묵은 비극적 결말의 충격을 배가시킨다. 짧지만 강렬한 드라마가 합창의 호흡 속에서 또렷이 되살아난다.

Program Note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Op.314

Johann Strauss II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작곡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Johann Strauss II, 1825-1899)

작사 | 프란츠 폰 게르네르트 (Franz von Gernerth, 1821-1900)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1867년에 작곡한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왈츠의 왕'이라는 그의 명성을 굳힌 대표작이다. 원래는 합창이 있는 곡으로 출발했으나, 곧 관현악 왈츠로 정착해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았다.

느린 서주 뒤에 다섯 개의 주요 왈츠 주제가 이어지며 밝고 경쾌한 선율과 유려한 리듬으로 도나우 강의 흐름과 빈 시민의 낙천적 정서를 노래한다. 단순한 무곡을 넘어 세련된 예술로 승화된 이 곡은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으며 오스트리아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빈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로, 삶의 기쁨과 낭만을 응축한 음악으로 청중을 매혹한다.

Pomp and Circumstance March No.1 in D major, Op.39, No.1 Edward Elgar

위풍당당 행진곡

작곡 | 에드워드 엘가 (Edward Elgar, 1857-1934)

작사 | 아서 크리스토퍼 벤슨 (Arthur Christopher Benson, 1862-1925)

에드워드 엘가가 1901년에 발표한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은 영국 음악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관현악 작품 중 하나이다. 엘가는 총 다섯 곡의 행진곡을 작곡했으나, 그 중에서도 제1번은 힘차고 장엄한 선율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중간부의 서정적이고도 장대한 선율은 영국에서 'Land of Hope and Glory'라는 가사와 결합해 국가적 상징성을 획득하였다.

가사는 작가이자 학자였던 아서 크리스토퍼 벤슨이 붙였으며,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는 노랫말은 영국 제국의 번영과 자부심을 노래한다. 초연 당시부터 대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이후 영국의 제 2의 국가(國歌)와 같은 성격을 띠며 영국 왕실 행사나 국가적 의식, 졸업식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음악적으로는 당당하고 힘찬 도입부와 서정적 선율이 교차하며, 고귀한 품격과 기품을 동시에 드러낸다. 특히 후반부의 합창이 더해진 버전은 관현악의 웅장함과 합창의 장엄함이 결합하여 더욱 숭고한 울림을 전한다. 오늘날에도 이 곡은 단순한 행진곡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전 세계 무대에서 연주되고 있다.

Radetzky-Marsch, Op.228

Johann Strauss

라데츠키 행진곡

작곡 | 요한 슈트라우스 1세 (Johann Strauss I, 1804-1849)

작사, 합창 편곡 | 한태호 (Taeho Han, 1989-)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1848년 오스트리아 군의 명장 요제프 라데츠키 장군의 이탈리아 전선 승리를 기념해 작곡한 행진곡으로, 작품번호는 Op.228이다. 본래 군사적 승전을 찬양하기 위해 쓰였으나, 경쾌하고 힘찬 리듬과 선율 덕분에 빠르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오스트리아 국민의 애호곡으로 자리잡았다. 초연 당시부터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며 리듬을 맞췄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서 관객과 지휘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으로 굳어졌다.

음악적으로는 간결한 행진곡 형식 속에 민속적인 활기와 우아함이 녹아 있어 단순한 군악곡을 넘어선 매력을 지니며, 특히 후렴부의 반복과 힘찬 관현악의 울림은 축제적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오늘날에는 군사적 배경과 무관하게 연주되며,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가사를 붙인 합창 편곡 버전으로 연주되어, 관현악의 웅장함에 더해 합창이 함께 울려 퍼짐으로써 공동체적 환희와 축제의 정서를 더욱 풍성하게 전한다.

지휘 백영학



© Bonsookko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음악가
- 서울과학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지휘 전공 편입 및 동대학원 수료 후 도미
- 커티스 음악원(관현악 지휘), 템플 음악대학(오페라 코치) 수학
-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OperaDelaware Orchestra, Sofia Festival Orchestra, Orchestra Society of Philadelphia 등 국내외 관현악단 다수 지휘
- tvN <유퀴즈 온더 블럭> 방송 출연
- 現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現 서울페스타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

Artists

서울시합창단 솔리스트

대관식 미사



소프라노 신채림



메조소프라노 광경안



테너 정보람



베이스 나한유

축배의 노래



소프라노 허진아



테너 김민수

오르간



오르간 이수정



서울시합창단 SEOUL METROPOLITAN CHORUS

합창, 그 본연의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우리가 느낀 감동의 메아리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서울시합창단이 추구하는 합창이다.

서울시합창단은 예술적 경지를 잘 표현하는 합창단,
그래서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합창단의 길을 가고자 한다.

서울시합창단은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과 함께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정서함양, 문화 창달 기여를 목적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사적 걸작과 국내외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폭넓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나며 합창음악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진화신 원금연 한은진 최선율
정주연 배우선 정선훤 허진아
김태희 박은혜 이상윤 신채림
한승연

알토

조영화 윤경희 이선아 이강희
남혜덕 김오수 광경안 김지은
전다은 김수진

테너

류승각 정보람 한근희 한상희
김재화 김민수 이용희 김재성

베이스

신재훈 김홍민 장철유 권상원
김형수 최은수 박태영 나한유
최승원

반주

박성은 백동현

총무

배승현

악보

한태호



연주 서울페스타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축제(FESTIVAL)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2016년 창단

- 주요연주
- 지브리 & 디즈니 영화음악 FESTA

· 너의 이름은 필름 콘서트

· 지브리 영화음악 FESTA

· 디즈니 OST FESTA
- 지브리 & 발레 FESTA

· 백조의 호수 & 호두까기인형 발레 FESTA

· Coldplay & Oasis Orchestra 콘서트 외 다수

<div>제1바이올린</div> <div>박진희 악장 강혜진</div> <div>김민진 윤민지 최주은</div> <div>김용국 정민영 이선영</div> <div>음정인 김채연</div>	<div>더블베이스</div> <div>노은정 수석 김현미</div> <div>플루트</div> <div>차홍서 수석 배희주</div>	<div>트롬본</div> <div>최정원 수석 임건우</div> <div>베이스 트롬본</div> <div>신재우</div>	<div>타악기</div> <div>성주인 수석 송승호 홍의일</div> <div>하프</div> <div>박윤하 수석</div>
<div>제2바이올린</div> <div>남승혁 수석 조은희 장희영</div> <div>노지선 박지수 조은비</div> <div>김수하</div>	<div>오보에</div> <div>안지윤 수석 백민정</div> <div>클라리넷</div> <div>백양지 수석 김아름</div>	<div>튜바</div> <div>임지훈</div> <div>호른</div> <div>이용준 수석 최지혜</div> <div>오솔하늘 오명석</div>	<div>대표 안상훈</div> <div>본부장 홍의일</div> <div>팀장 배관욱</div> <div>차장 신국환</div> <div>대리 조은비</div>
<div>비올라</div> <div>이지선 수석 최혜미 서지수</div> <div>박혜정 유시연</div>	<div>바순</div> <div>함승현 수석 임다은</div>	<div>팀파니</div> <div>안상훈 수석</div>	
<div>첼로</div> <div>이길재 수석 이유라 김경난</div> <div>김채경</div>	<div>트럼펫</div> <div>석재현 수석 오택호</div>		

PRODUCTION STAFF

제작 스태프

서울시합창단

단장	문경아
악보·편곡	한태호
연습지휘	박태영
연습반주	박성은 백동현
총무	배승현

공연제작2팀

팀장	김화영
프로듀서	채수경

지휘	백윤학
연출	김어진

무대감독	장연희
음향디자인	이효원
조명디자인	변호연
영상디자인	배준호 신민승

홍보물디자인	2×2
홍보영상	유정아 전원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공연제작2팀

팀장 김화영

팀원 이지향 이현주 채수경 신기루 류성광
김보름

공연장운영팀

팀장 한성국

팀원 전윤선 최병훈 이정연 임아라 강민재
강민선 김지성 김재범 최민주 차주운
김지연 유혜리 이보람 길연우

공연DX팀

팀장 김여향

팀원 강봉진 조계성 배유진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이승미

팀원 김석경 윤문성 신대섭 손귀영 한채현
이재효

무대기술팀

팀장 김수현

책임안전관리자 이종덕

무대감독 이민재 실장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철 실장 김상두 서민원 김정
박정길 전해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향 김우람 실장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김경민 채소영 남윤수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명 노준식 실장 김학철 조현권 김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김태진

영상 배준호 실장 한완주 장인표 류병현

의상소품 변미라 실장 천지연 곽내영

행정 양준혁

